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기도서 317면(A해)

제1독서: 신 명 8,2-3,14b-16

제2독서: I 고린 10,16-17

복 음: 요 한 6,51-59

순정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인: 홍보관
인쇄: 관리국

편집실: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0042·0043

강론



사랑을 먹고 나누자

강인찬 신부

컴퓨터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계산에 매우 약삭빠른 것 같다. 그러다보니 우리 머리속에는 계산신경이 복잡해지고 너무나 이해타산만 하는 계산기가 되어버린 느낌이다. 그래서 친구를 사귄대도 계산이 앞서고, 이웃을 돕고 용서하는데도 계산이 앞선다.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과 시간까지 이해타산적이 아닌가 싶다. 지난주 텔레비전에 방영된 <6개월후>라는 드라마게임의 내용도 부모 자식간에 너무나 계산적인 한 단면을 보여준 경우다. 자식이라면 부모를 위하는 마음이야 누구나 다 있겠지만, 그 마음이 구체화되어야 할 때는 한발 물러서거나 계산적이 되고 만다. 안타까운 현실이고 보면, 하느님의 사랑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인 것 같다.

오늘은 성체와 성혈 축일이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니라. ...받아 마셔라, 이는 내 피니라.”(마태오 26, 26-28) 하신대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비 계산적임을 보여 주셨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한번의 행위가 아니라, 성체성사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사랑의 행위이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은총까지도 더해 주시는 사랑이다(요한 6, 54).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이 사랑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좀 더 그리스도의 나눔의 진리를 묵상해보자.

첫째, 예수께서는 당신의 시간을 아끼지 않으시고 나누어 주셨다. 낮이진 밤이진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나누어 주셨다.

둘째, 예수께서는 당신의 정력과 능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봉사하셨다. 병자, 죄인, 배고픈자, 억눌린자, 모든 이를 위해 온 힘을 다해서 봉사하셨다.

셋째, 예수께서는 재물을 축적하지 않으시고 베풀었다. “머리 들 곳조차 없으신 분”이셨다(마태오 8, 20).

넷째, 예수께서는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를 위해 생명까지 바치셨다.

그리고 당신의 몸까지 우리에게 성체성사에서 나누어 주신다.

이 나눔의 진리, 곧 사랑의 진리를 그리스도는 가르쳐 주신 것이다. 나눔은 곧 사랑을 구체화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을 가질뿐 현실 앞에서는 한발 물러서거나 계산적인 신자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마음을 구체화 하기 위하여 나누자. 시간, 정력, 재물, 자신을 나누어 베풀 때,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고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사랑과 나눔이 부족한 우리에게 약이요, 사랑과 나눔을 풍성케 하고 생명까지 보장받는 밥인 성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주 모시자. (관리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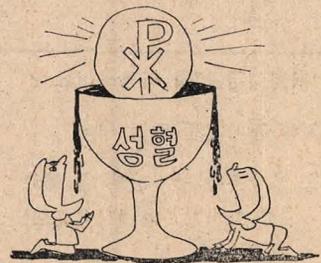
또다시 블랙 리스트

몇년 전부터 우리 교회는 근로자들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블랙 리스트를 없애라고 관련 업체와 관계 당국에 요구한바 있다. 특별히 최근에는 태창 메리야쓰 사건과 관련되어 부당해고된 근로자들에 대한 블랙 리스트의 철폐를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런 것은 없다는게 그들의 답변이었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블랙 리스트에 대해서는 최근 대구사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 노동자 복지 협의회·한국 가톨릭 노동 청년회·민주화 운동 청년 연합은 지난 6월 8일, 대구 택시 운전 기사들의 항의와 농성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택시 운전기사들이 그동안 어떻게 일해왔나, 그들의 항의와 농성의 정당성, 운전기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주장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부재, 관계 당국과 택시 사업주들의 약속 위반과 새로운 탄압책,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말하며 7개항의 요구사항도 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택시 운전기사들에 대한 보복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블랙 리스트로 악용되고 있는 취업 카드제(블랙 리스트)를 즉시 철폐하라”는 것이다.

이 사건을 취재한 신문사 정치부 기자들의 좌담 내용을 들어보자. —“대구 집단시위 이후 회사측이 블랙 리스트를 만들어 노조결성 운동에 가담했거나 회사측에 정당한 불만을 제기한 운전사까지도 다른 회사에 취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었습니다. 몇년 전 경인(京仁)지역 공업단지에서는 블랙 리스트가 있었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블랙 리스트의 횡포가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는 좀더 밝혀져야겠지만, 생존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횡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마당에 왜 또 블랙 리스트가 문제가 되는가! 주여, 용서하소서.

순정이 산책



영원한 생명을
전기위하여

□교리 해설

성 체 성 사

그리스도의 모든 신비는 근본적으로 신앙의 신비이다. 만약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이 없다면 그 하나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신앙의 신비들 중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성체성사이다.

성체(Eucharistia)란 희랍어에서 나왔는데 원래는 '감사하다'는 뜻이다. 외형으로는 밀떡과 포도주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제적 현존이다.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수난을 당하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친히 성체성사를 제정하셨다. 이로써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신다. 그러므로 성체성사는 사랑의 성사요, 일치와 성사인 것이다.

성체성사는 신앙생활의 으뜸이 되고 중심이 되는 성사이다. 그 이유는 성체성사가 이루어지는 미사 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통한 신비를 체험하고 현실화하기 때문이다. 신자들은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성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충만한 은총을 받게되어 장차 우리가 받을 구원에 미리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체성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은총의 극치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실 때에는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는 등,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 더 고귀한 손님일수록 그 준비는 더욱 정성을 들이고 철저히 한다. 그러면 우리는 성체를 모시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우선 마음의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 마음에 걸리는 죄가 있다면 고백성사와 기도로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 또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또한 육체적인 준비로서는 교회에서 정한 '공복제'를 지켜야 한다. 공복제한 영성체 하기 전 한 시간부터 음료수와 약을 제외한 모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랑과 일치와 성사인 성체성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타 내며 성체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로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사도 바울로와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임이다」(갈라 2, 20)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

새 교회법에 따라 미사의 성질이 다른 경우에는 하루에도 여러번 영성체 할 수 있다. (장례미사, 혼배미사, 그의 특별한 미사)

북한 선교의 의의, 목표 및 방향②

1. 목 표

북한선교의 목표는 북한의 복음화 뿐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남북의 일치를 이루는데 있으며, 이는 민족의 간절한 염원인 동시에 하느님께서 한국 천주교회에 맡기신 지상명령이며 과제인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이 통일되어 북한의 교회가 충분히 본연의 사명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은갖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더 나아가 중국 내에 있는 교포를 위한 사목은 물론 중국에 대한 선교도 시대적 정표로 볼 때 역시 한국 천주교회의 사명이라 확신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1. 방 향

① 모든 신자들이 남북통일과 북한선교가 우리 교회에 맡겨진 하느님의 지상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복음전파 초기에 우리 선교선열들과 선교사들이 지녔던 불타는 사랑과 선교정신을 본받아 동포애에 불타고 선교의 비장한 각오를 갖도록 한다.

② 교회는 공산주의에 끝까지 대항해야 하나 동포에 대한 증오와 적대감은 불식시켜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미움과 적개심은 일치와 평화는 커녕 분열과 싸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는 혈육에 대한 살인 행위요, 아버지 하느님께 대한 모독이다.

③ 은 인류를 구원으로 섭리하고 계시는 하느님의 전능과 사랑을 믿고서 간절한 기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절허하게 그리고 항구하게 가능한 일부터 실행해 나간다.

④ 교황청 및 세계 가톨릭과의 긴밀한 유대와 협조를 전지하고 또한 기타 유관단체나 기관과도 필요한 경우 유기적 연관을 갖되 순수하게 종교적 차원에서 활동한다.

□전주교구 7위 성인 ⑦

성 조 윤호 요셉(1848~1866)

아버지 조 화서와 함께 순교한 조 윤호는 충청도 신창에서 태중 교우로 태어났다. 1864년 아버지를 따라 전주 지방의 교우촌인 성지동으로 이사하여 교우 처녀인 이 루치아와 결혼했다. 1866년 12월 5일 아버지 조 화서, 정 원지, 이 명서 등과 함께 체포되어 전주 감영에서 아버지와 함께 6, 7차의 심문과 형벌을 받았으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 아버지가 순교한지 10일 후인 12월 23일 전주 서문 밖 숲정사에서 곤장 16도를 맞은 후 19세의 나이로 참수형을 받고 순교했다.

☆ 금성 "팩토리컴웅"을 이용하세요 ☆

각종 전자제품 일절 구비

서울 신락은행 앞 전화 ② 8661 ③ 9963

대표 김 석 환(마테오)



금성 이리 판매 센터

영진 비디오 음악사

결혼·회갑·각종행사
촬영 전문

비디오 테이프 판매 교환
카세트테이프·레코드판매

전화 2-4094

채 석 자(글라라)

(전주백화점~한아름백화점 사이)

진선미 꽃집

꽃꽂이 수강생 모집

조화(종이꽃) 대여

☎ ② 2 6 2 8

이 마리아(명자)

범 띠도(덕배)

□ 오늘은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

한국 천주교회 선교 200주년의 기쁨을 함께 하지 못하는 북한 형제들과 6.25 희생자들, 납북된 형제들, 조국의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톨릭 기도서 84면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 참조)

□ 평화의 사도 요한 바오로 2세 방한 화보 신청

가톨릭 신문사에서는 6월말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 화보를 발간한다. 교황 성하의 한반도 순례 현장을 생생한 컬러 사진과 함께 순례 중에 행한 말씀 등 관련자료를 총망라, 한국 방문의 완벽한 자료집으로 내놓게 될 것이다. 교황 성하 방한 화보는 컬러 국매판 최고급 용지 총 2백48면 호화양장으로 정가는 18,000원이다.

신청처: 교구청 홍보국

신청방법: 직접 홍보국으로 하시거나 본당 사무장님을 통하여 홍보국으로 신청하시면 화보가 도착하는데로 연락을 드립니다. (선불하신 경우는 본당으로 우송하여 드립니다.)

※ 신청하실 때 주소, 성명, 본당, 전화번호를 분명히 알려 주십시오.

□ 가톨릭 교리신학원 졸업생들에게

가톨릭 교리신학원에서 1984년도 개교 25주년을 기하여 졸업생들의 주소록을 만들고 있으니 교리신학원의 모든 졸업생들은 빠짐없이 성명, 주소, 전화, 직장명, 졸업년도 등을 기록하여 교리신학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110]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90-12

가톨릭 교리신학원 교무과

전화 (762) 2274

성체방문이란?

예수 그리스도는 성체 안에 몸과 피와 영혼과 신성으로 현존하여 계시는 길 진리 생명이시며, 또한 감실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당신께로 부르신다. 그는 모든 이를 비추시고, 가르치시고, 차가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힘을 주시며,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하여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리교리도의 성 알폰소는 말하기를 “종일토록 하는 다른 모든 선행보다 성체대전에 15분 동안 기도하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아르스의 성 요한 비안네는 어느 한 농부가 자주 성당에서 감실을 보며 기도하는 것을 보고 “당신은 주님께 어떤 말씀을 드립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은 나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 착한 의지를 되찾게 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성체조배는 전인과 평온한 죽음을 보증한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나는 매일 예수님을 배웠다. 그분께로 나아가려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당신을 똑똑히 보게 하시고 얼굴을 마주 대하여 그분을 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나는 언제나 그분의 얼굴과 영과 사랑을 찾아 나섰었다. 그분은 나를 멀리 하지 않으신다.” 예수께서는 “구하라, 곧 받을 것이다” 하셨으니 당신 말씀대로 어디서든지 구하면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체를 방문하는 이에게는 예수께서 훨씬 쉽게 은총을 내리신다. 충실하게 성체를 방문하면 묵상과 미사 그리고 영성체의 효과가 확고하게 될뿐 아니라 부족한 것까지도 채워지게 된다. 다만 성체를 방문할 때에 우리 마음이 천상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조건이다.

요십이(568) 김병오



모집공고

- 인원: 0명
- 자격: 천주교 신자 인고졸이상의 여자
- 제출서류: 자필이력서 1통
- 서류마감: 6. 26. 5시
- 1차 서류심사 후 개인 통보함

천주교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장

건강을 드려요

전주 중앙시장 입구

시민약국

☎ 0009 • ☎ 3338

김마필로
정엘리사벳

학원생 수시 모집 (주·야)
철저한 개인지도
V.T.R로 산 교육화

현대 미용학원

전주시서노송동 (중앙성당앞)
원장: 김테레사 (금순)
☎ 9206 • ☎ 5289

혼수(회갑) 옷감 | 도매상
• 특수 파티복 *
• 고급 침구류 |
• 각종 솜 일체 |
• 커벤지

서울주단

☎ 0453 ☎ 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미영칼라현상소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신설

☎ 3651 • 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 (토마스모어)
미영의 (투리포니아)

금·은·보석·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

금보장

장(방저거) 채(마리아)
☎ 6-4989 (사구팔구)
최신 컴퓨터 조정기 특설

(4) 순 정 이



☆ 축! 겹진: 장수 본당 (24일)

1. 제7차 레지오 연수회: 24일 오전 9시30분~오후 5시, 센타, 대상-레지오 간부 및 단원, 참가비-2천원
2. 혼인법원 개원일: 25일 오전 10시, 장소-교구청
3. 박찬길 신부님 출국: 23일 (스위스 유학)
4. 제14차 어린이양육의 모후 뿌리아 회의: 7월 1일 오후 2시, 장소-전동성당 회의실, 대상-각Pr. 간부
5. 특별 피정에 초대합니다: 7월 5일 오전 10시~오후 5시 (파견미사), 장소-노송동성당, 대상-레지오단원

· 푸른군대 회원 · 일반 신자, 준비물-미사준비 (현금 없음), 1천원 · 도시락, 강사-하안포니오 신부 · 유재호 회장, 주회-푸른군대 한국본부, 후원-레지오 마리에 한국 세나투스

□ 전화번호 변경: 서경수 신부님-이리 52-0971, 성연 복지원-군산 7-2549

□ 축! 영명: 성 요한 세자 (25일) - 김 봉희 · 왕 수혜 · 한 기호 · 김 요안 신부님
성 베드로 · 바오로 (30일) - 김 영구 · 이 대권 · 서 석기 · 김 병열 · 김 영진 · 박 창진 · 엄 기봉
· 문 규현 · 이 순성 · 김 희남 · 박 인호 · 정 양현 신부님

제 1 지구 각 본당 소식 ①

(중앙)

주임 신부 문 정 현
보좌 신부 나 춘 성
사도 회장 김 인 협
전화 ①7111~3

- ☆ 축! 본당의 날: 예수성심대축일 (29일), 장소-천호
1. 본당의 날 행사: 29일 오전 9시 성당 집합, 회비-2천원, 신청마감-금일까지, 준비물-미사도구 · 점심
 2. 각 신심단체: 7월중 행사계획표 사무실에 제출 요망
 3. 벽돌헌금: 22, 122장 봉헌 (익명 2, 625장 제저금동봉헌)
- 지난주 봉헌금: 1,023,960원 교무금: 696,200원

(노송동)

신부 ①0969
수·사 ③7032
주임 신부 김 동 태
보좌 신부 이 성 우
사도 회장 이 홍 재

1. 정성과 희생으로 새생전 건립하자: 서기순 · 박선생 · 이수만-각 100만원, 주선남-70만원, 임영빈-60만원, 임분자 · 이창남 · 이해숙 · 이선생 · 박천수-각 50만원, 신미진 · 일채규 · 김귀선-각 40만원, 김순남-35만원, 안남근-48만원, 신 근-24만원
누계: 57,470,000원
 2. 새생전 헌판식: 오늘 오전 10시30분, 신축부지에서 오늘 본당에 공식미사는 없습니다. 많은 참여 바람
 3. 유아영세식: 30일 오후 3시
대부모님 모시고 오후 2시까지 나오세요
 4. 교무금 납부의 날: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6월말까지 납부실적 (개인별)을 발표하겠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차주의 전례담당: 제1조, 차질없이 진행합니다
 6. 구역봉사자 모임: 6월 29일 오후 8시
- 지난주 봉헌금: 415,700원, 아파트: 116,770원
교무금: 517,500원, 아파트: 113,000원

(덕진)

신부 (3) 2182 주임 신부 김 봉 회
전화 수녀 (72) 1222 보좌 신부 김 요 안
사무 (72) 6259 사도 회장 양 상 열

- ☆ 축하합니다: 25일 보좌신부님 영명축일
오늘 축하식, 공식미사 후
1. 오늘의 모임: 진복회, 공식미사 후
 2. 전례 · 교육분과 회의: 27일 밤 8시
 3. 봉사 · 재경분과 회의: 29일 밤 8시
 4. 청년연합회 1월말 피정: 30일 밤 (독배에서) 본당내 모든 젊은이들의 참가를 바랍니다
회비-3천원, 접수-보좌신부님 사무실
 5. 중·고학생회 임시총회 소집: 다음주일 9시 미사후
 6. 진복유치원 새원감: 강메사 선생님 부임 보다 큰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7. 금주 본당 청소: 주일학교
 8. 다음주 모임 (예고): 요셉회 (60세 이상 원로 모임)
 9. 미사시간 엄수: 미사 10분전에 꼭 참석 바람
- 지난주 봉헌금: 527,740원 교무금: 168,000원

(복자)

사제관 75-0592 주임 신부 권 영 균
사·수 2-5238 사도 회장 김 성 원

1. 사도회: 오늘 저녁미사 후
2. 첫영성체 교리: 7월 1일부터 이수녀님 지도
3. 주소변경 및전화변경과 신설은 사무실에 연락 바람
4. 혼인성사: 받으실분 1개월전에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5. 교무금 미납자는 속히 완납 바랍니다
6. 미사시간 엄수: 미사 10분전에 성가연습 어린이를 보호하신 분은 조용히 하시기 바람
7. 금주청소: 월요일-다위타pr. 토요일-셋별pr.

8. 어머니 설가대: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성가연습 있습니다
 9. 감사합니다: 성당한 선봉기 2대-익명 5대가 더 필요하나 협조 바랍니다
 10. 금주전례: 해설-황만금, 독서-①이갑진 ②송영자
차주전례: 해설-김인식, 독서-①장기연 ②정운주
- 지난주 봉헌금: 114,540원 교무금: 563,880원

(서학동)

신부 ①8307 주임 신부 김 동 준
수녀 ②276번 사도 회장 김 낙 균

1. 모임: 사도회 월례회-7월 4일 저녁미사 후 자모회-7월 3일 오전 10시30분
 2. 사제양성후원: 이병훈 · 박미란 · 최천태 · 강병동 · 김진숙 · 김옥자 · 조호진 · 정형석 · 익명 (각 1주씩) 감사합니다
 3. 성지순례: 25일 새벽 6시 성당에서 출발
지참물-도시락 · 목주 · 미사도구, 시간연수 바람
 4. 중 · 고 각 쉼 본당신부님과 만남: 30일~7월 1일
 5. 차주전례: 독서-①박장훈 ②전영택
- 지난주 봉헌금: 351,300원 교무금: 256,000원

(순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김 종 길
수·유 ①9567 사도 회장 김 수 겁

1. 레지오 순회교육: 30일 오후 2~5시까지
장소-순정이 본당
 2. 애령회: 다음달로 연기
 3. 순정이 신협: 조합원 월례회 (교육) 24일 11시30분
 4. 금주전례: 해설-이귀례, 독서-기도-이철수 · 송숙자
차주전례: 해설-홍성조, 독서-기도-정주복 · 허옥순
- 지난주 봉헌금: 204,120원 교무금: 619,800원

(전동)

신부 ①6208 주임 신부 김 치 삼
전화 사무 ③3222 보좌 신부 정 양 현
수녀 ②8347 사도 회장 김 병 오

- ☆ 축! 영명: 정양현 (베드로) 신부님+30일
축하식-7월 1일 공식미사 후
1. 글라라 형제회: 오늘 오후 1시30분
 2. 사도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유아세례: 다음주 학생미사 후
 4. 전동 올레리아: 26일 저녁미사 후
 5.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이상태, 독서-①최병래 ②이주영
공식미사: 해설-이양자, 독서-①신일균 ②장금배
저녁미사: 해설-최원일, 독서-①최종만 ②이훈
- 지난주 봉헌금: 802,630원 교무금: 463,000원

(호자동)

신부 75-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수녀 2-4804 보좌 신부 정 양 현
사무 2-0915 사도회장 이 교 성

1. 예수 성심의 밤: 29일 밤 8시~9시30분
 2. 성령 은혜의 밤: 27일 밤 7시30분~9시30분
 3. 사목방문: 27일 오전-주공2단지 아파트
 4. 자모회: 오늘 공식미사 후 (유치원)
 5. 성서강좌 안내: 수-저녁 8시, 토-오전 11시
 6. 뿌리아: 다음주 오후 2시30분
 7. 사목회의: 다음주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344,727원 교무금: 672,210원